

매스투어리즘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적 대응 - 바르셀로네타 사건을 중심으로*

조관연**

| 국문초록 |

본 글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해안 근린지구인 바르셀로네타를 통해 도시 관광의 형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총체적(holistic)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모든 도시와 지역은 각자 고유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어서 바르셀로네타에서 벌어진 양상을 다른 모든 지역의 관광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 일 인당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국내외 많은 관광 종사자들은 가장 성공적인 관광도시로 바르셀로나를 꼽고 있으며, 많은 지역 정치인들은 낙후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바르셀로나를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희망과 달리 바르셀로나 관광은 장밋빛 모습뿐만 아니라 깊은 부정적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장기지속가능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호 존중하고 공생하는 관광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관광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하다. 바르셀로나와 같이 극단적인 저항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요 관광도시의 일부 지역 주민은 이미 도시 관광에 대해 불편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정치인과 학자 그리고 언론인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2014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네타에서 벌어진 사건은 주민의 삶을 중시하는 관광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재사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어: 도시관광, 공유숙박, 바르셀로나, 관광지화, 관광정책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book@pusan.ac.kr)

| 차례 |

1. 들어가며
2. 새로운 도시 관광에 대한 연구 현황
3. 바르셀로네타 사건
4. 바르셀로네타 사건의 중층적 이해
5. 사회적 파장과 변화
6. 나가며

1. 들어가며

2016년 스페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관광산업은 현재 세계에 서 두 번째로 크며, 낙후된 경제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관광이 GDP의 11.1%를 차지하고, 249만 명이 이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일자리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¹⁾ 스페인에서 지난 20년 동안 관광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지역에 따라 성장률은 차이가 난다. 가장 크게 성장한 도시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카탈루냐의 주도(主都)인 바르셀로나이다. 바르셀로나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인기 관광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었다. 2015년 에만 750만 명의 관광객이 인구 160만 명의 비교적 작은 도시의 호텔에서 묵었는데, 이는 유럽에서 런던과 파리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²⁾ 가장 관광객이 붐비는 7~8월 인기 관광지인 람블라스(Ramblas) 거리는 관광객으로 매우 붐비는데, 전체 보행자의 80% 정도가 외국 관광객이다. 관광산업은 바르셀로나를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도시로 만들었고, 시민으로

1) Statista, "Percentage contribution to GDP by travel and tourism in Spain from 2010 to 2016", 2017.

2) Statista, "Annual expenditure of international tourists visiting Catalonia from 2004 to 2017", 2018.

하여금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젠트리피케이션, 주거난, 사생활 침해, 물가와 임대료 상승 등을 들어 관광객을 향해 혐오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 의회가 2015년에 발표한 설문 조사 자료에 의하면, 불평등과 교통문제에 이어 관광 문제가 시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³⁾

관광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도시 관광은 다양한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인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 관광 연구에서 바르셀로나가 중요한 이유는 관광산업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르셀로나에는 빈 집 점거운동처럼 강력한 대안 문화운동이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과 행동에서 도시 관광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업계에서 신데렐라와 같은 선두도시인데, 이는 뛰어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과 자연조건 그리고 문화적, 예술적 다양성과 우수함 때문이다. 매스투어리즘(masstourism)에 반대하는 대안 문화세력은 이와 같은 관광 조건을 가진 바르셀로나에서 도시 관광의 이상적 가치와 방향에 대해 재사유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은 시의 관광정책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는 다른 관광도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글은 바르셀로나 관광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바르셀로네타(Barceloneta) 근린지구에서 벌어진 매스투어리즘 반대 운동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운동이 바르셀로나 관광정책과 다른 도시들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르셀로나 사례는 현

3) Statista, "Evolution of the percentage of citizens of Barcelona who saw tourism as the main problem of the city from 2010 to 2016", 2017.

재 매스투어리즘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로 점차 관광객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주요 관광도시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2. 새로운 도시 관광에 대한 연구 현황

전 세계적으로 도시 관광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는 관광이 예전에는 별도로 분리된 공간적 생태계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관광 형태에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활동하는 공간이 서로 크게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이 지역과 주민에 끼치는 영향이 적었다. 도시 관광에 본격적으로 처음 주목한 학자는 데이비드 하비인데, 그는 기업가(entrepreneur) 도시에 관한 세미나에서 관광이 도시의 선전광고(boosterism)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고, 도시 간에 관광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⁴⁾ 1990년대 하비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은 경제적 역동성과 정치적 전략이 도시 관광의 모습을 구성하고, 이것이 다시 직업 시장과 도시 공간 그리고 도시 행정에 끼치는 영향을 밝혀냈다.⁵⁾ 이후 초기 포스트모던 관광 사회학은 도시 관광객 상당수가 이전과 달리 공식적인 관광 공간에서 연출된 경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런 “포스트모던한 관광 기대치”⁶⁾는 관광객 수요에 맞도록 만들어진 관광지의 “장소 상실감”

4) Harvey, D.,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Transformation in Urban Governance in Late Capitalism”, *Geografiska Annaler B*, Vol.71, No.1, 1989, pp.3~17.

5) Gladstone, D. L., “Tourism Urb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Urban Affairs Review*, Vol.34, No.1, 1998, pp.3~27.

6) Feifer, M., *Going places: The ways of the tourist from Imperial Rome to the present day*, Macmillan: London, 1985.

(placelessness)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새로운 도시 관광 형태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 포스트모던 관광객은 기존의 만들어진 공간 대신에 “대안적 공공 공간들”(alternative public spaces), “창의적 도시 지구들”(creative urban areas) 또는 “민족적 지역들”(ethnic precincts)을 찾아 나섰다.⁷⁾ 이전의 관광객과 달리, 이들은 도시에서 “진정한”(authentic) 장소감과 주민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도시 관광 문화가 “진짜” 또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도시의 일상성과 장소성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⁸⁾ 메이틀랜드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에게-역주) 중요한 선정 기준은 도시 주민의 일상과 일상적인 행동의 진정성과 (관광객의-역주) 발길이 닿지 않았던 지역이 되었다.”⁹⁾라고 하였다. 이전의 도시 관광객이 주로 구획된 장소 안에서 연출된 연행을 수동적으로 관람하였다면,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도시 내의 고유하고 독특한 방문지에서 그곳만의 생활양식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중시한다.¹⁰⁾ 도시 관광의 이런 변화 때문에 현재 일부 인기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관광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 시각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시 관광 현상은 이전 연구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적이고, 경계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¹¹⁾ 이들 새로운

7) Pappalepore, I., R. Maitland, & A. Smith, “Exploring urban creativity: Visitor experiences of Spitalfields London”, *Tourism, Culture and Communication*, Vol.10, No.3, 2010, pp.217~230.

8) Gilmore, J. and J. Pine II., *Authenticity: What Consumers Really Want*,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Waterton, 2007.

9) Maitland, R., “Everyday life as a creative experience in c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4, No.3, 2010, pp.176~185.

10) Romeiß-Stracke, F., “Städtetourismus in Gegenwart und Zukunft”, In Mückenberger U. and S. Timpf (eds.), *Zukünfte der europäischen Stadt*, VS Verlag: Wiesbaden, 2007, pp.34~57.

도시 관광객은 특정한 종류의 장소성 또는 경험에 관심이 있다. 이들은 후기 산업사회 시절 노동자 계급이 주로 살던 마을 또는 근린지구에서 “상상된” 일상성과 장소성을 경험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관심을 둔 지역에는 기능적, 종족적으로 혼합되어 있으면서도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불쾌함을 있는 그대로’(gritty) 또는 거친 날 것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이를 장소가 가진 특성을 매력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이를 탐사하고자 한다.¹²⁾ 저드는 새로운 인기 도시 관광지를 “관광객을 초대하는 도시 속의 근린 지구는 관광객들이 전혀 목지 않는 장소일 수 있다. 이들은 도시 사회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초국가적 마을 또는 지역으로, ‘불안한’(edgy) 장소인데, 여기에는 종족적 소수자들, 비백인, 이주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일한다.”¹³⁾라고 정의했다. 새로운 도시 관광지는 플로리다가 언급한 “창조 계급”(creative class)의 자연스러운 거주지¹⁴⁾나 로이드의 “신 보헤미아”(Neo-Bohemia)¹⁵⁾ 주거지와 상당히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새로운 도시 관광 연구에 따르면 이들 도시 관광객은 이전의 분리된 또는 구획된 지역 또는 장소에서 관광을 소비하던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면서 도시 정경도 크게 변화시킨다. 이들 도시 관광객은

11) Novy, J., and S. Hunting, “New Tourism (Areas) in the “New Berlin”, In Maitland, R. and P. Newman (eds.) *World Tourism Cities. Developing Tourism Off the Beaten Track*, Routledge: London, 2008.

12) Zukin, S.,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 Oxford Univ. Press: Oxford, 2010.

13) Judd, D.R., “Visitors and the Spatial Ecology of the City”, In Hoffman L. M., S. S. Fainstein & D.R. Judd (eds), *Cities and Visitors: Regulating People, Markets and City Space*, Blackwell: Malden, 2003, pp.23~38.

14) Florida, R.,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New York, 2005.

15) Lloyd, R., “Neo-Bohemia: Art and Neighborhood Redevelopment in Chicago”, *Journal of Urban Affairs*, Vol.24, No.5, 2002, pp.517~532.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 주민의 “진짜”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 특정 지역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이때 주민과 새로운 도시 관광객이 선호하는 장소와 행위가 상당히 중첩되면서 이들은 제한된 자원과 서비스를 둘러싸고 종종 경쟁 관계에 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관광객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데, 이런 갈등 양상은 각각의 도시나 지역 또는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새로운 도시 관광객이 무엇을 그리고 왜 새로운 소비 대상을 선호하는지 등을 밝히는데 주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 새로운 도시 관광 형태로 인해 도시 관광객과 주민의 관심이 중첩되면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해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장소를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인문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만 이런 연구가 가능한데, 본 글은 새로운 인기 도시 관광지인 바르셀로나를 통해 이와 같은 점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인(holistic) 시각에서 재구성해서 그 안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도시와 인간 그리고 관광이 서로 어떻게 새롭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를 통해 각 지역의 개별성과 고유성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일반화를 발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3. 바르셀로네타 사건

2014년 8월 21일 술 취한 이탈리아 남자 관광객 세 명이 바르셀로나 해수욕장 근처 마을인 바르셀로네타 근린지구에서 세 시간 정도 나체로 거리를 활보했다. 이들이 활보하는 동안 공권력은 그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은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

로 끝날 것 같은 이 사건은 주민, 포르너(Vincenç Forner)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들 청년이 지역상점에서 쫓겨나는 사진들을 게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사진을 본 분노한 바르셀로나 시민 백여 명이 사진들을 페이스북으로 퍼 날랐고, 곧 이 사건은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스캔들이 되었다.

분노한 시민 십여 명이 그날 저녁 “술 취한” 관광객에 반대하는 시위를 바르셀로네타 마을에서 벌였는데, 다음 날에는 참가자가 백여 명 그리고 며칠 후에는 천여 명으로 늘었다. 시민의 시위가 심상치 않게 확대되자, 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와 오줌으로 얼룩진 거리를 청소했다. 이들 나체 청년들이 마을의 공유숙박에 머물렀기 때문에 시위 참가자들은 공유숙박을 반사회적 일탈행위의 근원으로 지목했다. 마을 주민은 이전부터 시당국에 불법 공유숙박 단속을 요구했는데, 당국은 이를 묵살하여왔다. 주민 상당수는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이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만들었다. 주민 상당수는 마을에 허가된 477채 이외의 불법 공유숙박 색출에 직접 나섰다, 자체 조사를 통해 등록된 것보다 7배나 많은 공유숙박이 마을에서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¹⁶⁾

주민의 분노는 공유숙박을 넘어 무능하고 부패한 시 당국을 향하기 시작했고, 시 당국은 이에 당황해서 미디어 콘퍼런스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¹⁷⁾ 경찰의 순찰과 거리청소가 강화되었고, 9월에 접어들면서 관광 성수기도 점차 끝나갔다. 나체 활보 사건과 시민의 시위 소식이 서구 주요 신문에 보도되자, 공유숙박 게스트는 이 마을을 기피하였

16) Kassam, Ashifa, “Naked Italians spark protests against antics of drunken tourists in Barcelona”, *The Guardian*, 2014년 8월 21일; *The Guardian*, “Mass tourism can kill a city - just ask Barcelona's residents”, 2014년 9월 2일; 바르셀로네타 사건 고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L9XsBFqvdY>).

17) *The Economist*, “Tourism in Barcelona: Nobody goes there any more, it's too crowded”, 2015년 10월 17일.

고, 불법 공유숙박 호스트는 이웃 주민의 감시가 무서워 게스트를 받지 않았다. 마을에는 한순간 평화가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은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고, 시의 관광정책을 둘러싸고 논쟁도 가열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를 수 주 동안 주도한 시민단체는 <바르셀로나는 질렀다!>(La Barceloneta Diu Prou, 영: Barceloneta Says Enough!) 였다. 이 단체 대변인인 세르지오 아르나스(Sergio Arnás)는 “(관광문제 때문에-역주) 이미 많은 주민이 지역을 떠났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는 “술 취한 관광”(drunken tourism)을 끝내야 한다”고 당국의 관광정책을 성토했다. 시위에 참여한 프리에토(Prieto)는 “관광객이 우리 발코니를 향해 오줌 누고, 세탁실에 불 지르고, 또 다른 이는 건물 복도에서 용변을 봤다”라고 관광객의 “만행”을 추가 폭로했다.¹⁸⁾ 다른 주민도 관광객의 “야만적인” 행동을 사진 찍어서 추가 폭로했는데, 바나나 의상¹⁹⁾을 입은 관광객의 만취한 모습, 나체로 발코니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모습, 거리에서 용변 보는 모습, 광란의 파티 장면 등이 지역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었다. 주민은 일상 생활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공유숙박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강력하게 규제해 줄 것을 지방 정부에 요구했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과 신문들은 이 문제를 사

18) Edwards, Sam, “Pissed-Off Barcelona Residents Are Fighting Back Against Drunk, Naked Tourists”, *Vice*, 2015년 6월 10일.

19) “바나나 공화국”(Banana Republic)은 외국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은 물론 부패정치, 독재, 등 정치적 불안정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구제불능 상태에 있는 국가를 경멸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나나는 서구에서 매우 경멸적인 의미로 종종 정치의 장에서 쓰인다. 스페인은 1982년까지 36년 동안 프랑코 독재정권이 지배했고, 일부 계층의 부패는 심했다. 1982년 프랑코가 사망하면서 스페인 민주화가 시작되었는데, 민주정권은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관광과 같은 대외 의존적 부문을 활성화했다. 지역 주민 그리고 스페인 사람에게 관광객이 입은 바나나 옷과 반사회적 행동은 단지 옷 이상의 의미로 읽힌 것 같다.

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계속 비중 있게 다루었다.²⁰⁾

사회적 분노가 공유숙박으로 향하자, 공유숙박을 대변하는 <바르셀로나 호스트 연합>(The Association of Barcelona Hosts, AMFBCN)은 비판자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공유숙박 호스트는 신뢰할만한 게스트를 선별적 받아야 하며,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방지하거나 규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일부 호스트가 이런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비판자들은 이런 호스트가 아니라 공유숙박 자체를 비난하고, 더 나아가 폐지를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공유숙박의 주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라 문화 간 상호이해와 교류인데, 실제로 많은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도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게스트는 이를 통해 시민의 삶과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²¹⁾. 이 연합은 공유숙박이 지역 사회에 끼친 경제적 효과도 제시하였다. 에어비앤비 회사의 2013년 발표에 의하면, 공유숙박은 바르셀로나 시에서 4억 3천만 유로의 경제적 효과와 4,000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다²²⁾.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유숙박은 호텔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직접 시민에게 주었다고 주장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 골목상권이 유지된 것도 상당 부분 공유숙박의 성과라고도 했으며, 공유숙박이 내는 도시세는 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²³⁾

시민 상당수는 관광, 특히 공유숙박에 대해 극단적인 찬반 양 진영으로 나뉘었는데, 이들은 관광과 삶 부문에서 확연하게 서로 다른 가치와 생각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바르셀로네타 사건은 이런 차이를 확연

20) Edwards, 앞의 글.

21) Finnigan, Chris, "Is Barcelona suffering from an overdose of tourism?", *El Pais*, 2014년 5월 12일.

22) Airbnb, *Airbnb Economic Impact*, 2013.

23) *The Local*, "Is tourism destroying Barcelona?", 2016년 6월 29일.

하게 드러냈는데, 시민단체 PPTV의 대변인인 카사냐스(Elisabeth Casañas)는 공유숙박과 외국관광객을 “불법적”, “폭력적”으로 낙인찍는데 <바르셀로나는 질렸다!> 등과 같은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주민은 전에 없던 공동체 분열을 겪고 있으며, 관계는 서먹서먹해졌다”라고 했다.²⁴⁾ 바르셀로네타 사건의 원인을 공유숙박에서만 찾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선 스페인의 관광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4. 바르셀로네타 사건의 증층적 이해

1) 정부의 관광정책

스페인은 19세기 말부터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겪었고, 프랑코 정권(1939~75)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집권하였다. 독재정치는 정치와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켰는데, 일부 서유럽 국민은 스페인을 서유럽의 수치라고 비판하였다. 이 당시 스페인 이차산업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고, 농업만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다. 스페인에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풍부한 문화자원이 있었고, 이를 이용한 관광 산업은 국가 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견인차로 재발견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관광 진흥 정책은 사회 기반 시설과 투자재원의 부족 그리고 국제적 신뢰 상실과 정치적 불안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산층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보다는 저소득 젊은이를 위한 저가 (패키지)관광 상품 개발과 판매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 서구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스페인 저가 패키지 관광 상품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24) *The Local*, “Locals ramp up ‘war’ on low-cost tourism”, 2014년 8월 22일.

의 자유와 해방, 즉 사회적 일탈 행위를 암시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젊은이들은 이런 관광정책 때문에 한여름 발레아레스 제도와 코스타 브라바 등지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홀리데이파티(holiday party) 관광을 벌였는데²⁵⁾, 이런 관광형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바르셀로네타 사건은 이 영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프랑코가 1975년 사망한 후 스페인의 민주주의는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외국 자본은 사회 불안이 상존하고 사회 투명성이 높지 않은 이 국가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1982년 유럽연합 정식 회원이 되자 외국 자본들은 스페인 투자에 점차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스페인 정부는 서구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특혜를 보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자본 간의 유착 관계가 만들어졌다. 정부 비판자들과 지식인은 이 유착 관계를 “도둑 정치”(kleptocracy)라고 자조적으로 혹평했다²⁶⁾. 외국인 투자는 이윤이 높고, 회수가 빠른 관광부문에 집중되었는데, 이들 투자자의 상당수는 이 부문에서 큰 수익을 챙겼다. 하지만 당시 서유럽 선진국들과 스페인 사이에는 경제적 격차가 컸기 때문에 이들 투자는 스페인 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²⁷⁾

스페인 사람들은 ‘경제위기’에서 ‘위기’(la crisis)라는 말에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유로지역 위기, 즉 경제위기만을 뜻하는

25) Hargreaves, John, *Freedom For Catalonia?: Catalan Nationalism, Spanish Identity and the Barcelona Olympic Ga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37~55.

26) Degen, Mónica, “Sensing Cities: Regenerating public life in Barcelona and Manchester”, London: Routledge, *Routledge Studies in human geography*, Vol.24, 2008.; Pollock, Anna, “Six reasons why mass tourism is unsustainable”, *The Guardian*, 2013년 8월 21일.

27) Croft, Adrian, “Barcelona mayor’s tourism crackdown puts Airbnb in firing line”, *Reuters*, 2015년 8월 26일.

것이 아니다. 스페인 엘리트 계층인 정치인, 은행가, 왕족, 관료 모두가 부패라는 고질병에 걸린 것과 프랑코 사후 진척된 민주적 합의에 대한 신뢰가 위협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²⁸⁾ 국영사회연구소가 2012년 12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7.5%가 스페인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800만 명의 분노한 사람들(indignados)이 2011년 봄과 여름에 거리로 나와 “지금 진짜 민주주의를!”을 요구했다.²⁹⁾ 많은 청년이 이런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도둑 정치’에 의해 자신들의 미래가 도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인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20% 내외였지만,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진 후 급상승했다. 바르셀로나 사건이 터진 2014년에는 50%를 넘어서서 정점에 다다랐다. 이후 완만한 하강세를 보이지만, 유럽 연합 국가들의 평균 청년실업률이 2016년에 20%인 것을 고려하면 스페인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³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스페인, 특히 바르셀로나의 높아진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이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관광객 숫자도 대폭 증가하였다. 이 덕분에 지역 문화와 예술도 점차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6~2008년 사이 외국 자본이 주로 관광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는데, 여기서 커다란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졌다. 스페인 부동산 가격이 이 기간에 세 배나 폭등하였는데, 이 거품이 꺼지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스페인 사람 40만 명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이런 현상은 인기 관

28) 댄 헨콕스(윤길순 역), 『우리는 이상한 마을에 산다: 스페인 마을 공동체 마리날레다』, 위즈덤 하우스, 2014, 34쪽.

29) 댄 헨콕스, 위의 책, 35쪽.

30) 스페인 청년 실업률: Trading Economics, “Spain Youth Unemployment Rate”, 2016년 10월 10일.

광지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했다.³¹⁾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전후로 낙후된 바르셀로네타 지역도 큰 변화를 한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치가 1988년 결정되자, 시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자본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긴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자원이 풍부한 바르셀로나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외국 관광객은 비싼 항공기나 버스 또는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었다. 당시 고속철도나 고속도로가 없어서 육상 여행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불편했다. 하지만 2008년 마드리드-바르셀로나 고속철도, 이후 E09, E15 그리고 E90 고속도로가 연이어 개통하면서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파리 그리고 지중해 연안 도시들과의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여기에 2008년부터 취항한 저가항공도 바르셀로나와 유럽 주요 도시 간의 이동 시간과 여행경비를 대폭 줄여주었다. 바르셀로나 기반 부엘링(Vueling) 저가항공은 2008년 취항하자마자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는데, 2014년 이 항공사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100여 개 도시를 취항해서 1,720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다. 이외에도 라이언에어, 이지젯, 노르웨이 에어 셔틀, 이지젯 스위스, 위즈에어, 트랜사비아 등과 같은 저가항공사들이 속속 취항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유럽 다른 도시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이 도시는 명실상부한 유럽 저가항공의 중심지로 거듭났다.³²⁾ 에어비앤비가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해도 2008년이었는데, 저가항공과 에어비앤비는 바르셀로나에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매스투어리즘 또는 “저가관광”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매스투어리즘이 시작되면서 바르셀로나의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31) Pollock, Anna, 앞의 글, 2013년 8월 21일.

32) Statista, “Number of passengers using the high-speed train or AVE between Madrid and Barcelona from 2010 to 2014”, 2015.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네타 지역에서도 포트 벨 항구 재개발과 함께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다. 해안의 전망을 가로막고 있던 허름한 식당과 술집 그리고 대중목욕탕이 철거되고, 여기에 고급 식당과 바 그리고 클럽들이 들어섰다. 이들 레스토랑은 바르셀로나에서 고급스러운 해산물 요리로 유명하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과 아이맥스영화관이 건설되고, 몬주익과 바르셀로네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와 산책로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재개발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네타 주변 정경을 완전히 바꾸었고, 이 지역은 이제 관광명소로서 필요한 인프라를 잘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개발이 금지되었던 해안의 보호건축물들이 외국 대자본에 매각되었고, 이 투자회사는 당국의 전폭적인 특혜에 힘입어서 이들 건물을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개조하였다. 이런 관광 개발 정책을 통해 관광객은 쉽고 편하게 바르셀로네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해안가와 유흥시설에서 이른 새벽까지 저렴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³³⁾ 또한, 시는 더 많은 관광객을 일 년 내내 유치하기 위해 철도와 부도 시설을 철거하고, 여기에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거대한 복합쇼핑센터, 마레 마그넘(Maremagnum)을 지었다. 또한, 이 쇼핑센터 주변에는 부유한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요트 계류장과 크루즈 선박 터미널도 건설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포트 벨(Port Vell) 항구는 지중해에서 가장 화려하고, 인기 있는 도심 관광지로 재탄생하였다. 2014년 236만 명의 관광객이 764척의 크루즈 선박을 타고 인구 160만의 바르셀로나를 방문했는데, 관광 성수기에는 하루 6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구도심으로 몰려들었다.³⁴⁾ 바르셀로나 관광청의 2013년 조사에 의하면, 이들 크루즈 관광객은 시에 약 2억 5

33) Matlack, Carol, "Barcelona's Mayor to Tourists: Go Away", *Bloomberg*, 2015년 6월 5일.

34) *The Local*, "Barcelona breaks cruise record as 60,000 sail into city over weekend", 2015년 9월 14일.

천7백만 달러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선물했고, 이들은 주로 박물관, 교회, 식당, 관광상품점 등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요식업과 문화와 예술산업에도 큰 경제적 혜택을 선물하였다.³⁵⁾ 유례없이 많은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시 재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적지 않은 주민은 관광객 홍수로 인해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감수해만 했다. 수변공간의 재구조화와 재개발을 통해 예전에 한적한 노동자의 숙소였던 바르셀로네타 지역 주민이 특히 큰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약화로 이어졌다.

2) 바르셀로네타의 변화와 갈등

바르셀로네타는 올림픽 게임 이전까지 한적한 해변 마을이었고, 노동자를 위해 저렴하게 건설된 주택에는 주로 노동자와 대학생과 같은 경제적 취약 계층이 주로 살았다.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들은 시설이 좋지 않은 공동주택에 살았다. 다른 구도심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들 주민 대다수는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이 지역에는 강한 푸에블로(pueblo) 의식이 있었다.³⁶⁾ 부유한 주민 상당수는 1970~90년대 외곽에 지어진 현대적인 신축 건물로 이사하면서 구도심 주택의 상당수는 빈 채로 방치되었는데, 바르셀로네타 주민은 이런 도심 공동화 시기에도 구도심을 지키면서 살았다. 하지만 1992년 하계올림픽을 전후해 이 지역의 재구조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이런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바르셀로나 시는 관광을 특화된 경제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대대적으로 재

35) The Local, 위의 글, 2015년 9월 14일.

36) 피트-리버스는 중앙정부의 압제와 차별 때문에 형성된 마을 공동체 의식을 푸에블로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바르셀로네타와 같은 스페인의 많은 다른 지역공동체에도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Pitt-Rivers, J. A., *The People of the Sierra*, New York: Criterion Books, 1954, 23쪽 참조.

구조화하였다. 오래된 항만시설이 철거되고, 여기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인기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하였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지역은 이런 재구조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허름한 공동주택의 재개발은 투자자에게 별다른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주민 중 일부는 해산물을 주변 고급 레스토랑에 공급해서 관광의 혜택을 누렸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이전처럼 노동자나 대학생으로 저렴하게 이 지역에서 살았다.³⁷⁾

스페인 사람 중 상당수는 2008년 스페인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때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저가항공의 시대가 개막되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매스투어리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 정부는 위기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히 공유숙박을 적극 활용하였다. 시 당국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바르셀로나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대량으로 발급하였다.³⁸⁾ 바르셀로나는 지하철로 한 정거장 또는, 걸어서 15분 정도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인 고딱 지구나 고급상점이 밀집한 보른 지역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주변에는 아름답게 재단장한 모래 해변과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홀리데이 파티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다.³⁹⁾ 노동자의 숙소로 지어진 바르셀로나의 주택은 허름하였고, 난간에는 빨래가 걸려있으며, 주민이 거리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특히 외국 도시 관광객이 경험하기 원하는 “상상의” 노동자 일상이었다. 이들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바르셀로나를 매력적인

37) Kassam, Ashifa, “Barcelona Has Identified New Kind of Tourist Problem: Too Many of Them”, *The Guardian*, 2014년 6월 16일.

38) Statista, “Evolution of the number of hotels in Barcelona from 1990 to 2016”, 2017.

39) Gordon, Sarah, “Mass tourism is ruining Barcelona and turning it into a ‘theme park’, claims controversial new documentary”, *Dailymail*, 2014년 4월 22일.

관광지로 재발견한 것이다.

일부 주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유숙박을 통해 기본 생계비를 벌었고, 시는 도시세를 통해 적자 재정을 보충했다. 바르셀로나 사건이 벌어질 당시 이곳의 월세가 보통 200~300유로였지만, 공유숙박으로는 2~3배를 더 벌 수 있었다. 이런 매력 때문에 몇몇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고, 일부 투자자들도 주택들을 사들여서 공유숙박으로 용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⁴⁰⁾ 시 당국은 이런 용도전환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장하였다. 일부 시 또는 구의원들은 이런 용도전환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동료의원들을 집단적으로 이들을 따돌렸으며,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⁴¹⁾ 이렇게 늘어난 공유숙박은 홀리데이 파티를 즐기려는 일부 젊은 관광객에게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하였다. 홀리데이 파티 관광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독채 공유숙박을 임대할 수 있었고, 호텔에서는 불가능한 파티를 이곳에서 밤새 즐길 수 있었다.⁴²⁾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내는 소음에 온종일 시달렸고, 일부 서구관광객의 노상 방뇨나 길거리 음주 그리고 고성방가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감수해야만 했다. 마을 주민의 명성과 자존감 그리고 삶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 갔다.⁴³⁾

시의 관광 정책은 집중화와 과밀화를 초래했다. 바르셀로나는 다른 유럽 대도시들보다 도시 면적이 작고(101km²), 인구밀도는 매우 높아서(1km²당 15,887명) 토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⁴⁴⁾ 이러한 지리적 특징에 관광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광객의

40) Croft, Adrian, 앞의 글, 2015년 8월 26일.

41) Hosteltur, *Turismo: el tema estrella y más polémico de las elecciones en Barcelona*, 2015년 4월 29일.

42) *The Local*, "Locals ramp up 'war' on low-cost tourism", 2014년 8월 22일.

43) Kassam, Ashifa, 앞의 글, 2014년 6월 16일.

44) Barcelona Turisme, 위의 글, 2016, p.2~4.

수요와 공급은 구도심과 주변 근린지구 그리고 항구 주변에 집중됐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우 낮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구도심 중심 거리인 람블라스 거리인데, 연간 1억 명의 관광객이 장소에 모여든다.⁴⁵⁾ 관광객이 그다음으로 선호하는 공간은 바르셀로네타와 같은 해변과 수변공간인데, 지역 주민도 올림픽 이후 건설된 새로운 건물들과 상점 그리고 유흥업소들 때문에 관광객처럼 이 지역을 좋아한다.⁴⁶⁾ 이전 도시 관광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였다면,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같은 공간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변 공간 이외에도 구도심의 핵심인 시우타드 벨라와 카탈로니아 광장(Plaça Catalunya), 쇼핑하기 편하고 볼거리가 많은 그라시아 거리(Passeig de Gràcia),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Sagrada Família) 그리고 구엘 공원(Park Güell) 등에서도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공간의 소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는데⁴⁷⁾, 지역 주민 대부분은 이 공간에 대해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두고 있다.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들 장소에 대해 자신 만의 고유한 경험과 추억 그리고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장소를 더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주민은 매스투어리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바르셀로네타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숙박 시설도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다. 바르셀로나 관광에서 숙박시설의 집중화 현상은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인기 관광지인 시우타드 벨라와 에이삼플라 및 산트 마르티 지역에 이 시설이 집중된 반면에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다. 숙박시설의 불평등한 분포는 해당 주민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시의회가 시민을

45) Statista, "Number of cruise passengers in the Port of Barcelona from 1990 to 2017", 2018.

46) Barcelona Turisme, *Barcelona tourism activity report 2015*, 2016.

47) Statista, "Most visited tourist attractions in the city of Barcelona in 2016", 2017.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 과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시민의 21% 정도가 숙박시설이 너무 많다고 대답했지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난다.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역이며 허브 역할을 하는 시우타드 벨라 주민의 66.4%는 이곳에 호텔과 호스텔 그리고 공유숙박이 너무 많다고 응답하였는데, 바르셀로나네타가 여기에 존재한다. 이에 반해 찬성률이 낮은 레스 코르츠, 구이나르도, 사리아 산트 제르바시, 산트 안드레우 그리고 노우 바리스에는 관광지와 공유숙박이 거의 없는데 이곳 주민 대부분은 숙박시설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⁸⁾ 도심 외곽에 숙박 시설을 지으면 인기가 없고, 이윤 회수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곳에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반면에 인기 관광지역에서는 건설 허가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인기 관광 지역 주민은 숙박시설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은 이런 모습을 시의 발전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숙박시설을 둘러싸고 주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매스투어리즘은 바르셀로나 전체 물가 인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매스투어리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물가를 100으로 하면, 2012년에는 103, 2013년 104.9, 2015년 105.2, 2016년 105.4, 2017년 107.6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런 물가 인상을 이끈 것은 임대료였는데, 특히 상점의 용도전환과 공유숙박이 임대료 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⁹⁾ 시우타드 벨라나 에이샴플레 지역의 저렴한 공동주택이 관광객을 위한 공유숙박으로 변하면서, 주민은 주택난과 관광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나 일부 임차인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기존 상점을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가게나 카페 그리고 식당으로 바

48) Ajuntament de Barcelona, *2016 Percepció del Turisme a Barcelona*, 2017, p.13.

49) Barcelona Turisme, *Tourism statistics. Barcelona: city and surroundings*, 2016, 42쪽.

꾸었고, 당국의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건물주나 임차인도 불법으로 공동주택을 공유숙박으로 임대하였다. 바르셀로네타의 건물주나 임차인은 주민에게 월세로 임차하는 것보다 숙박공유를 통해 최대 5배 이상 이윤을 거둘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작성한 2016년 보고서는 관광을 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근린지구에서 주택 공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⁵⁰⁾

일부 지역에서 매스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지화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주민은 2014년 8월 이탈리아 청년들이 나체로 질주하면서 폭발하였다. 일부 주민과 사회활동가의 시위와 저항은 공유숙박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론장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시위는 관광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바르셀로네타 주민을 심하게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논쟁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열되면서 바르셀로나 시민의 분열로도 이어졌다.⁵¹⁾

3) 바르셀로네타 사건의 심층적 이해

바르셀로나의 도시 관광에 대한 저항과 항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동인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 주류 엘리트 세력의 기존 가치와 이들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분석이다. 스페인의 어두웠던 독재정치와 국제노동분업 환경에서 국가의 경제와 정치는 낙후성을 면치 못했는데, 새로운 민주정부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때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가동하였고,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2007년의 국제금융위기와 2008년의

50) Barcelona Turisme, 위의 글, 43쪽.

51) *The Local*, "Is tourism destroying Barcelona?", 2016년 6월 29일.

스페인 경제위기는 이 정책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스페인 경제는 빠르게 국제 개발과 투기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하였으며, 일부 지역의 공동체는 붕괴하였고, 사적 영역은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 스페인에서 지역 공동체는 자기 삶의 기반이며, 삶의 경험 축적된 장소이고, 자기 구현의 장이며, 인정과 공감 그리고 상호부양의 토대이다. 정부의 관광정책은 이런 공동체 붕괴를 방지하거나 조장하였는데, 이런 맥락에서 바르셀로나 도시 관광 비판자들의 시위와 저항은 경제 논리에 함몰된 무능하고 “씨늘한” 정치권과 행정력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이들 시위와 저항이 가진 또 다른 함의는 인정 투쟁이다. 특히 프랑코 독재시기에 바르셀로나는 중앙정부로부터 심한 정치적, 사회적 억압과 탄압을 받았고, 카탈루냐 정체성은 소멸 위기로 내몰렸다. 이런 탄압 과정에서 카탈루냐인 상당수는 중앙정부와 지배 엘리트에 대해 강한 반감과 저항정신을 키워나갔는데, 중앙정부와 지배 엘리트가 주도한 관광정책은 카탈루냐 지방을 개인적 일탈이 성행하는 매스투어리즘 성지로 만들었다. 마갈루프 스타일로 대변되는 관광 행태는 이 지역을 서유럽 관광객의 사회적 일탈 장소로 만들었으며, 이는 풍요로운 문화유산과 전통을 가진 지역민의 명예와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카탈루냐와 바르셀로나의 지역민 상당수는 이 과정에서 다국적 그리고 지역의 자본과 투자세력에 의해 종종 배제되거나 축출되었고, 삶의 기반인 마을은 테마파크화 되었기 때문에 반감은 더 증폭되었다. 바르셀로나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배제와 축출도 심화하였는데, 특히 새롭게 인기 관광지가 된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현상은 더 심했다.

1980~90년대 상당수 부자는 좁고, 편의시설이 불편한 도심을 떠나 교외에 지어진 현대적 거주지로 떠나갔다. 이들 약자 계층은 도심의 오래된 주택에 살면서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구축했고, 이 덕분에 도심 공동화와

슬럼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를 전후해 도시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의 존재와 업적이 이윤 극대화와 관광객 편의 향상을 위해 무시되었다. 이제 이들은 이 지역에서 더는 유용하지 않은 또는 가치 없는 사람들로 평가받게 되었다. 특히 바르셀로네타 마을은 노동자 주거지였으며, 이곳 주민은 오랫동안 무시당하는 삶을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갔다. 하지만 도시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곳 사람은 일부 서유럽 홀리데이 파티 관광객과 거대 자본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새롭게 무시를 당하고 축출되는 처지가 되었고, 이에 분노한 주민은 자신의 존재와 자긍심을 도시 관광 정책에 대한 저항과 거부 운동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셀로네타 주민의 저항과 분노는 일견 가시적인 공유숙박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비가시적인 무례한 도시 관광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5. 사회적 파장과 변화

바르셀로네타 사건으로 촉발된 일부 시민의 매스투어리즘 또는 관광지화에 반대하는 시위는 몇 달 후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시위대는 성장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기존 지방정부 하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5년 시의회 선거를 목표로 새로운 정치세력과 연대한다. 이들은 관광객의 편의보다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그리고 주거권을 중시하는 <바르셀로나 엔 코무>(Barcelona en Comú)와 연대해서 시내 매스투어리즘 문제를 의제화하는 선거 전략을 펼쳤다.

<바르셀로나 엔 코무>는 2015년 5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들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고, 아다 콜라우(Ada Colau)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초로 여성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녀는 시장이 되기 전

시민단체에서 적극 활동하였는데, 특히 서민의 이해관계보다는 자본과 권력의 편을 드는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대항하였다. 강제 퇴거를 저지하는 집단농성을 벌였고, 채무자와 재협상할 것을 은행에 촉구하였으며, 집에서 축출당한 사람들이 빈집 점거운동(Squatting)을 통해 거주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콜라우 시장은 관광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광객 3천만 명이 매년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면서 160만 바르셀로나 시민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하였고, 도시는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로 지저분해지고, 주민은 술 취한 관광객들의 노래와 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공유숙박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내의 주택 임대료가 폭등하고, 주민은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다”⁵²⁾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바르셀로네타 사건 이후 매스투어리즘 반대자들이 시위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콜라우 시장은 시가 관광객을 잘 흡수하면서도 주민의 삶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취임하자마자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구도심에서의 호텔 건설 추진 계획을 중단시켰다. 이전 정부는 2013년 7월 <새로운 도시 이용계획>을 시행해서 구도심의 B등급 이하 문화재 보호 건물도 호텔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외국 투자자들이 구도심에 있던 유서 깊은 건물들을 사들여 수익률이 좋은 호텔로 용도 전환하려고 했는데, 시장은 추진 중인 30여 개의 호텔 신축 프로젝트를 중지시켰고 공유숙박을 포함한 숙박시설에 대한 신규허가도 동결했다. 주거난과 월세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불법 공유숙박 단속에도 나서서, 이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합법적인 공유숙박이라도 연간 90일 이상 임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발표했다⁵³⁾. 실제로 20명의 특별 단속반이 숙박공

52) Matlack, Carol, “Barcelona’s Mayor to Tourists: Go Away”, *Bloomberg*, 2015년 6월 5일.

유 플랫폼에 임대 광고를 한 불법 공유숙박을 적발했고, 이를 게재하고 단속에 협조적이지 않은 에어비앤비 사에는 3만 유로(약 4천5백만 원)의 벌금을 두 차례 부과했다. 주민의 중요한 교류의 장이며 생필품 구매 장소인 보케리아 시장의 관광객 출입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지 주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인 금요일과 토요일 08:00~15:00까지 단체 관광객 입장을 제한하였고,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과 구엘 공원의 하루 입장객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한하였다. 시가 당면한 관광 문제는 이런 임시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관광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만들었다. 시의회는 2017년 후반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가치에 기반 한 도시 발전 계획, <2020 바르셀로나 관광>(Barcelona Tourism for 2020)을 발표했는데⁵⁴⁾,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몇 년 후이나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르셀로나네타 사건이 끼친 또 다른 사회적 영향은 유사한 관광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 간의 네트워크 결성과 연대이다. 도시 관광의 문제는 한 도시에서의 정책이나 시민 의식 그리고 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도시들은 서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의 삶보다는 관광객 편익에 중점을 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시행하였고, 관광객은 더 좋은 시설과 조건이 제공되는 곳으로 쉽게 목적지를 바꾸고 있다.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14개 도시⁵⁵⁾는 2017년 도시 관광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광지화에 반대하는 남유럽 사회운동 네트워크>(Sud

53) *The Economist*, "Tourism in Barcelona: Nobody goes there any more, it's too crowded", 2015년 10월 17일.

54) Ajuntament de Barcelona, *Barcelona Tourism for 2020: A collective strategy for sustainable tourism*, 2017.

55) 베네치아, 발렌시아, 세비아, 팔마, 팜플로나, 리스본, 몰타, 말라가, 마드리드, 지로나, 산세바스티안, 카나리아 제도, 타라고나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남유럽 14개 도시

d'Europa front la Turistització, SETnet)를 결성했다.⁵⁶⁾

이 네트워크의 핵심 주장은 바르셀로나 사건 이후 제시된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가장 큰 문제로 주거권을 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광은 이들 도시에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물가를 인상시켰는데, 특히 임대료와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교통비도 상당히 인상되었다. 기존의 근린지구에 있던 골목 상점들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아니라 관광객이 관심을 둘만한 기념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있다. 관광지에서의 교통 문제도 심각한데, 패키지 관광객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지역 주민은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남유럽에서 공원이나 광장은 주민의 휴식 장소이면서 서로 만나 소통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형성과 유지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이 장소들을 점령하면서 거리뿐만 아니라 공원과 광장 모두 관광지가 되었고, 주민들은 점차 이 거리와 광장의 사용을 멀리하게 되었다. 또한, 매스투어리즘은 지역주민의 이동성을 현저하게 제한하였고, 주민의 휴식 기회와 시간도 대폭 감소하게 하였다.

건조환경과 자연환경도 관광객의 취향과 호기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부하게 변화하면서 점차 도시들이 균질하게 되어가고 있다. 모든 도시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만들어진 고유성과 개별성이 있는데, 매스투어리즘은 이런 차이들을 점차 없애고 있다. 이 지역 간 네트워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광객을 위한 사회 간접 시설 건설과 유지비용의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관광객은 이들 시설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은 관광의 수혜와 상관없이 이의 건설과 유지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때문에 발생하는 오폐수와 쓰레기 등의 처리에도 현지 주민의 세금이 사용

56) SETnet에 대해서는 Eagan, Kevin, "Anti-tourism movement rising around European cities", *Tourism Review*, 2018년 4월 20일 참조.

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이런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차등화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관광문제 해결책은 모든 사회와 환경 그리고 주민의 삶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광객과 관광 종사자들, 해당 주민과 정책입안자와 개발업자의 생각과 개념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 단체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⁵⁷⁾

6. 나가며

바르셀로나 사건은 새로운 도시 관광지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사회적 부작용의 일단을 보여준다. 새로운 도시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요건과 역사문화 자원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광 진흥정책도 필수적이다. 여기에 대규모 민간 투자도 필요한데, 이를 유인하고 실제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관건이다. 낙후 지역의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여기에서 정치인과 자본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이 과정에서 부패와 불투명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윤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정책 때문에 지역민 또는 거주인의 수요와 욕구는 무시되기 쉽다.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한 도시에서 자연환경과 문화와 역사 자원이 있는 특정 지역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발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도시 내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과 주민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다. 또한, 관광객이 관심을 둔 도시들 사이에는 경쟁이 심해지고,

57) 지속 가능한 관광 운동에 대해서는 Thopson, Sara, "Tourism Crisis: Barcelona to limit the numbers of visitors", *Tourism Review*, 2017년 2월 6일 참조.

이들은 더 매력적인 장소로 태어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들은 점차 관광객에서 우호적인 테마파크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에 적응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주민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다.

바르셀로네타 마을은 노동자 주거지였으며, 이곳 주민은 오랫동안 무시당하는 삶을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갔다. 하지만 도시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곳 사람은 일부 서유럽 홀리데이 파티 관광객과 거대 자본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새롭게 무시를 당하고 축출되는 처지가 되었고, 이에 분노한 주민은 자신의 존재와 자긍심을 도시 관광에 대한 저항과 거부 운동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셀로네타 주민의 저항과 분노는 자신의 삶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무례한 도시 관광을 향하고 있다. 이들 시위와 저항이 가진 또 다른 함의는 인정 투쟁이다. 특히 프랑코 독재시기에 바르셀로나는 중앙정부로부터 심한 정치적, 사회적 억압과 탄압을 받았고, 카탈루냐 정체성은 소멸 위기로 내몰렸다. 이런 탄압 과정에서 카탈루냐인 상당수는 중앙정부와 지배 엘리트에 대해 강한 반감과 저항정신을 키워나갔는데, 중앙정부와 지배 엘리트가 주도한 관광정책은 카탈루냐 지방을 개인적 일탈이 성행하는 매스투어리즘 성지로 만들었다. 마갈루프 스타일로 대변되는 관광 행태는 이 지역을 서유럽 관광객의 사회적 일탈 장소로 만들었으며, 이는 풍요로운 문화유산과 전통을 가진 지역민의 명예와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카탈루냐와 바르셀로나의 지역민 상당수는 이 과정에서 다국적 그리고 지역의 자본과 투자세력에 의해서도 종종 배제되거나 축출되었기 때문에 반감은 더 증폭되었다. 바르셀로나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배제와 축출도 심화하였는데, 특히 바르셀로네타와 같이 새롭게 인기 관광지가 된 일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났다.

다른 많은 새로운 도시 관광지와 달리 바르셀로나에는 오랫동안 지역

역사와 문화의 고유성을 억압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역사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권력에 저항하는 강력한 시민단체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대안적 정책과 삶을 추구하였다. 바르셀로나에서의 강력한 대안 시민운동의 영향력과 힘은 대규모 투기자본에 저항하는 빈집점거운동에서 잘 드러나며, 이들 시민단체는 다른 도시들의 시민운동 단체들과 강력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바르셀로나 네타 사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들 시민단체의 구성원과 이들에 동조하는 세력이었다. 이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시의 매스투어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활발하게 조직하고 추진하였는데, 바르셀로나 사건은 이들의 목소리와 활동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시민단체의 저항운동 덕분에 더 많은 시민이 매스투어리즘과 관광지화가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화된 관광시장에서 특정 관광지 혹은 국가가 홀로 새로운 도시 관광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 힘들다. 현재 번덕스러운 도시 관광객은 다양한 대체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주는 관광지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 관광 문제를 겪는 도시들 또는 국가들은 서로 연대하고, 공론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면서 관광객과 공생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바르셀로나 사건은 더 많은 사람이 매스투어리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에 우호적인 권력으로 정권을 교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시민단체들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스페인 내 다른 관광도시들과 연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바르셀로나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도시가 매스투어리즘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강력한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였기 때문이

다. 바르셀로나네타 사건은 매스투어리즘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회에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교체시키고 주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유사한 매스투어리즘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관광 도시들 사이에 네트워크 연대와 공론장을 만드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참고문헌 |

- 댄 헨콕스(윤길순 역), 『우리는 이상한 마을에 산다: 스페인 마을 공동체 마리날레다』, 위즈덤 하우스, 2014.
- Degen, Mónica, "Sensing Cities: Regenerating public life in Barcelona and Manchester", London: Routledge, *Routledge Studies in human geography*, Vol.24, 2008.
- Feifer, M., *Going places: The ways of the tourist from Imperial Rome to the present day*, Macmillan: London, 1985.
- Florida, R.,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New York, 2005.
- Gilmore, J. and J. Pine II., *Authenticity: What Consumers Really Want*,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Watertown, 2007.
- Gladstone, D. L., "Tourism Urb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Urban Affairs Review*, Vol.34, No.1, 1998, pp.3~27.
- Hargreaves, John, *Freedom For Catalonia?: Catalan Nationalism, Spanish Identity and the Barcelona Olympic Ga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Harvey, D.,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Transformation in Urban Governance in Late Capitalism", *Geografiska Annaler B*, Vol.71, No.1, 1989.
- Judd, D.R., "Visitors and the Spatial Ecology of the City", In Hoffman L. M., S. S. Fainstein & D.R. Judd (eds), *Cities and Visitors: Regulating People, Markets and City Space*, Blackwell: Malden, 2003, pp.23~38.
- Lloyd, R., "Neo-Bohemia: Art and Neighborhood Redevelopment in Chicago", *Journal of Urban Affairs*, Vol.24, No.5, 2002, pp.517~532.
- Maitland, R., "Everyday life as a creative experience in c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4, No.3, 2010, pp.176~185.
- Novy, J., and S. Hunting, "New Tourism (Areas) in the "New Berlin"", In Maitland, R. and P. Newman (eds.) *World Tourism Cities. Developing Tourism Off the Beaten Track*, Routledge: London, 2008.
- Pappalepore, I., R. Maitland, & A. Smith, "Exploring urban creativity: Visitor experiences of Spitalfields London", *Tourism, Culture and Communication*, Vol.10, No.3, 2010, pp.217~230.
- Pitt-Rivers, J. A., *The People of the Sierra*, New York: Criterion Books, 1954.

Romeiß-Stracke, F., "Städtetourismus in Gegenwart und Zukunft", In Mückenberger U. and S. Timpf (eds.), *Zukünfte der europäischen Stadt*, VS Verlag: Wiesbaden, 2007, pp.34~57.

Zukin, S.,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 Oxford Univ. Press: Oxford, 2010.

신문

Croft, Adrian, "Barcelona mayor's tourism crackdown puts Airbnb in firing line", *Reuters*, 2015년 8월 26일.

Eagan, Kevin, "Anti-tourism movement rising around European cities", *Tourism Review*, 2018년 4월 20일.

Edwards, Sam, "Barcelona residents in revolt over city's 'tourism monoculture'", *El Pais*, 2015년 5월 4일.

Edwards, Sam, "Pissed-Off Barcelona Residents Are Fighting Back Against Drunk, Naked Tourists", *Vice*, 2015년 6월 10일.

Finnigan, Chris, "Is Barcelona suffering from an overdose of tourism?", *El Pais*, 2014년 5월 12일.

Gordon, Sarah, "Mass tourism is ruining Barcelona and turning it into a 'theme park', claims controversial new documentary", *Dailymail*, 2014년 4월 22일.

Kassam, Ashifa, "Barcelona Has Identified New Kind of Tourist Problem: Too Many of Them", *The Guardian*, 2014년 6월 16일.

Kassam, Ashifa, "Naked Italians spark protests against antics of drunken tourists in Barcelona", *The Guardian*, 2014년 8월 21일.

Matlack, Carol, "Barcelona's Mayor to Tourists: Go Away", *Bloomberg*, 2015년 6월 5일.

Pollock, Anna, "Six reasons why mass tourism is unsustainable", *The Guardian*, 2013년 8월 21일.

The Economist, "Tourism in Barcelona: Nobody goes there any more, it's too crowded", 2015년 10월 17일.

The Guardian, "Mass tourism can kill a city - just ask Barcelona's residents", 2014년 9월 2일.

The Local, "Locals ramp up 'war' on low-cost tourism", 2014년 8월 22일.

The Local, "Barcelona breaks cruise record as 60,000 sail into city over weekend", 2015년 9월 14일.

The Local, "Is tourism destroying Barcelona?", 2016년 6월 29일.

Thopson, Sara, "Tourism Crisis: Barcelona to limit the numbers of visitors",
Tourism Review, 2017년 2월 6일.

보고서

Ajuntament de Barcelona, *2016 Percepció del Turisme a Barcelona*, 2017.

Ajuntament de Barcelona, *L'Activitat Turística a la Ciutat de Barcelona 2015*,
2016.

Barcelona Turisme, *Barcelona tourism activity report 2015*, 2016.

Barcelona Turisme, *Barcelona tourism activity report 2016*, 2017.

Barcelona Turisme, *Tourism statistics. Barcelona: city and surroundings 2015*.

Barcelona Turisme, *Tourism statistics. Barcelona: city and surroundings 2016*,
2017.

Barcelona Turisme, *Tourism statistics. Barcelona: city and surroundings*, 2016.

hosteltur, *Turismo: el tema estrella y más polémico de las elecciones en
Barcelona*, 2015년 4월 29일.([https://www.hosteltur.com/110846_](https://www.hosteltur.com/110846_turismo-tema-estrella-polemico-elecciones-barcelona.html)
[turismo-tema-estrella-polemico-elecciones-barcelona.html](https://www.hosteltur.com/110846_turismo-tema-estrella-polemico-elecciones-barcelona.html)),
(검색일, 2019.03.10.)

Statista, "Annual expenditure of international tourists visiting Catalonia from
2004 to 2017", 2018.

Statista, "Evolution of the number of hotels in Barcelona from 1990 to 2016",
2017.

Statista, "Evolution of the percentage of citizens of Barcelona who saw tourism
as the main problem of the city from 2010 to 2016", 2017.

Statista, "Most visited tourist attractions in the city of Barcelona in 2016",
2017.

Statista, "Number of business meetings held in Barcelona in the context of
business tourism from 1990 to 2016 by type", 2017.

Statista, "Number of cruise passengers in the Port of Barcelona from 1990 to
2017", 2018.

Statista, "Number of passengers using the high-speed train or AVE between
Madrid and Barcelona from 2010 to 2014", 2015.

Statista, "Percentage contribution to GDP by travel and tourism in Spain from
2010 to 2016", 2017.

Trading Economics, "Spain Youth Unemployment Rate", 2016년 10월 10일.

UNWTO, *Yearbook of Tourism Statistics*, 2017.

동영상 자료

바르셀로나 사건 고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L9XsBFqvdY>).
Airbnb, *Airbnb Economic Impact*, 2013. (<http://blog.airbnb.com/economic-impact-airbnb/>), (검색일, 2019.03.10.)

| Abstract |

Conflicts over Mass Tourism and Its Social Reaction

- Focusing on the Barceloneta Accident

Cho, Gwanyeon

This article will examine urban tourism and social welfare through Barceloneta, a coastal neighborhood in Barcelona, Spain. Because every city and region has its ow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t can not be applied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Barceloneta in all other regions. However, it can help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tourism phenomenon that is currently happening in some parts of Korea. Barcelona is currently one of the fastest growing tourist destinations in the world and one of the city's most visited tourist destinations.

Many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are considering Barcelona as the most successful tourist city, and many local politicians consider Barcelona to be a role model in order to revitalize the poor economy. However, unlike their hopes, Barcelona's tourism has a rosy look as well as a negative shadow. It is currently important to look at the negative aspects of tourism in Barcelona in order to develop sustainable tourism models that are mutually respectful and symbiotic with local people and tourists. Although it is not an extreme resistance like Barcelona, some residents of Seoul, Jeju and Busan have already expressed discomfort and complaints about city tourism. However, politicians, scholars, and journalists who tend not to be active in hearing their voices and publicizing their problems. The events in Barceloneta in Barcelona

in the summer of 2014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think why tourism policies that emphasize the lives of residents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Key Words: New Urban Tourism, Tourist housing, social movements, Touristification, Barcelona, Tourism Policy

· 논문투고일: 2019년 3월 5일 ·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14일 · 게재결정일: 2019년 10월 24일